

"김대중·오부치 선언 상기해 한일관계 회복해야"

'지한파'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前주필

연세대, 김대중·오부치 선언 15주년 강연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입력: 2013.10.08 12:45:34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이 8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3.10.8/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등 우리가 잊고 있던 90년대 문건을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상기한다면 양국이 화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65)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15주년'을 기념해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악화된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악화된 한일관계 타개의 원점: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연세대 학부·대학원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와카미야 전 주필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는 조금 다르게 일본의 진심어린 과거사 반성에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무라야마 담화에는 한국, 일본 등 고유명사가 없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평화를 얘기할 뿐 외교 문서가 아니었다"며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양국을 명시하고 있고 외교문서로 작성돼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협정 50년이 되는 2년 후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선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나 양쪽 정부에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학생 등 양국 국민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5년 전 1998년 10월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은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다.

당시 정치부 기자였던 와카미야 전 주필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취재하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당시 오부치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관계를 돌이켜보고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대단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마음으로 사죄했다"고 전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이러한 표현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우호선린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씨는 "위안부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15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2013.10.8/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이와 함께 와카미야 전 주필은 최근 한일관계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어 양국 화해가 쉽지만은 아닐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없던 한일 정부간 갈등 ▲양국간 힘의 균형화 ▲아베 신조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수정 의지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등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연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과거 만주국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점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주국은 침략국이지만 아베 총리가 만주국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할아버지의 명예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배경이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베 총리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답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와카미야 전 주필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간간이 나오는 한국식 유머는 오랜 유학 생활 때문에 가능했다.

1981년 한국으로 유학 온 그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지난 1월 정년을 맞아 아사히신문을 퇴사한 뒤에는 서강대에서 한 학기 동안 또다시 한국어를 공부했다.

와카미야 전 주필은 1948년에 태어나 1970년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아사히신문에 입사해 정치부장, 논설 주간, 주필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아사히신문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우정의 섬으로 부르자'는 칼럼을 실는가 하면 2010년 7월부터 동아일보 칼럼을 연재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게이오대·류코쿠대 객원교수, 한국의 동서대 석좌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일포럼 간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신문기자: 현대사를 기록한다' 등이 있고 '화해와 내셔널리즘', '한국과 일본국', '권오기씨와의 대담' 등을 한국에서 번역·출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